Market Index / 2일

코스피지수	2031.91 -40.51	코스닥지수	624.51 -7.59	유가(WTI, 달러)	53.62 -0.45	환율(원)	1USD	살때 1226.59	팔때 1184.41	1EUR	살때 1340.88	팔때 1288.56
							100￥	1139.37	1100.19	1CNY	176.92	160.08

ASF에도 돼지고기·대체육 가격변동은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비 위축 등 영향 산지·유통가 작년 동기비 하락
10월 상승 전망 기대… 파주서 추가 발병 변수도

돼지고기는 물론 대체육인 소고기와 닭고기 등 제주산 축산물 대부분의 산지·유통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돼지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다.

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은 지육 kg당 56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45원보다 473원(7.7%) 낮다. 이 기간 제주산 돼지 100kg 기준 1마리 가격도 지난해 46만8000원에서 올해는 43만2000원으로 3만6000원이 내렸다. 이에 따른 생산비도 돼지는 28만4000원으로 1마리를 키우면 작년에는 18만4000원을 벌었지만 올해는 14만8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그쳤다.

대체육인 닭고기의 산지가격도 크게 떨어졌고 소고기 역시 돼지고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하락했다. 닭고기는 kg당 1200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97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주보다는 100원(6.0%)이 올랐으나 1년 전에 견주면 770원(39.1%)이나 내렸다. 소고기는 마리당 662만7000원으로 전년도 685만4000원보다 8.5% 하락했다. 지육 산지가격도 kg당 1만7450원으로 전년 동기의 1만9070원보다 1620원 싸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소비자가격도 삼겹살은 kg당 2만8030원으로 전주 2만8870원에 비해 2.9% 내렸다. 하지만 전달 2만2670원에 비해서는 23.3% 올랐다. 목살도 kg당 2만6870원으로 전달의 2만1800원에 견줘 23.3%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 폭등이 우려됐지만 현재 도내 육가공업체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유통되고 있어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 돼지고기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발표한 '축산관측 10월호'에 따르면 10월 전국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kg당 4000~4200원으로 지난해 동기 3911원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1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롯데관광개발 3100명 본격 채용 돌입

다음주 경력직원 공개 모집
신입사원 공채는 12월부터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건설 중인 롯데관광개발이 3100명에 이르는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공개 채용에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주 초 '사람인'과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와 제주도내의 매체광고 등을 통해 관리자급 경력직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270명으로 호텔 리테일 카지노 부문 등 5개 분야 대리 과장 차장 등 관리자급 경력직이다. 신입 사원의 경우 12월부터 대규모 공개 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롯데관광개발은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11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열리는 '2019 청년 DREAM 취업박람회&IP(지식재산) 페스티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9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에도 참가했던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력직원은 물론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전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으로 제주대, 한라대, 제주국제대 등 제주 소재 대학 및 유관단체 등과 MOU를 맺고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성산읍 신풍리 에코파티 모습.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숨겨진 매력 느끼는 여행"
10~11월 가을판 에코파티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느끼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제주 에코파티'가 줄지어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다양한 마을의 체험·생태·문화 자원과 재미를 결합한 가을판 에코파티를 개최한다. 에코파티는 4일 선흘1리를 시작으로 11월 9일 온평리까지 12개 마을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제주항공, 타이베이·가오슝 신규 취항

제주항공의 제주~타이베이, 제주~가오슝 노선이 2~3일 차례로 신규 취항한다. 특히 이번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며 '제주~타이베이~가오슝~제주' '제주~가오슝~타이베이~제주'로 이어지는 여행스케줄을 짤 수 있어 여행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타이베이 노선은 요일별로 운항 일정을 달리한다. 수요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오전 11시30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해 낮 12시55분에 타이베이 타오위안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타이베이에서는 오후 1시55분에 출발해 제주공항에 오후 5시1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토요일에는 제주에서 오후 2시35분 출발해 타이베이에 오후 3시45분에 도착하고, 타이베이에서 오후 5시10분(10월5일은 오후 5시30분)에 출발해 제주에 오후 8시35분(10월5일은 오후 9시5분) 도착한다.

3일에는 제주~가오슝 노선(목·일요일)이 주 2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이 노선은 제주공항에서 낮 12시에 출발해 타이완 가오슝에 오후 1시10분에 도착한다. 가오슝 출발은 오후 3시, 제주 도착시각은 오후 6시35분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신규 취항으로 도민의 타이완 여행이나 제주를 방문하려는 타이완 관광객 유치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의 관광객 입도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제주를 찾은 타이완 관광객은 5만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000여명에 견줘 122.7% 증가했다. 백금탁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美 대통령 탄핵이슈는 단기적 영향

미국 경기지표·무역협상에 더 주목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슈가 다시 미국 정가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탄핵조사 이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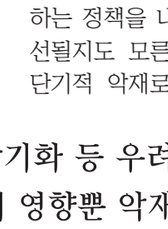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증시뿐만 아니라 국내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유는 현재 미국이 미중 무역분쟁 및 북미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 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활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뒤로 미루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현재 유력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당선되면서 미국 정부정책이 반기업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져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증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국내증시 역시 투자심리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이슈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자산시장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 또는 급락을 불러오는 상황은 아니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를 살펴보면 1974년 석유파동 이후 하락을 보이던 미국증시는 8월 8일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낙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후 12월 6일 저점까지는 30% 가까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석유파동이 안정을 찾고 미국 정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이후 미국증시는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 탄핵의 경우 하원에서 12월 19일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나 1999년 2월 12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당시 상황은 미국증시가 대세 상승기로 하원 탄핵안이 통과된 뒤로도 일시적 조정만을 보였으며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당시에도 경기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는 대통령이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증시에 단기적 악재로 작용하긴 했으나 그 여파가 크지는 않았다.

무역분쟁·북미협상 장기화 등 우려 변수 산재
과거 닉슨·클린턴 단기 영향뿐 악재 크지 않아

이처럼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안심리에 따른 증시 하락을 가져왔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상원에서 2/3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슈보다는 미국 경기 방향성이 결국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미국 경기지표 및 미중 무역협상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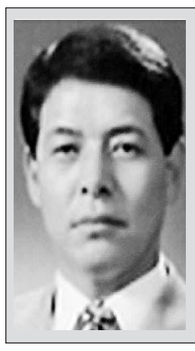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접 168㎡ 3억
- 애월수산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한림상명 조립식주택 60㎡/대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애월납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